Vol. 29
2013. 8. 16
BS경제인사이트 Weekly
BS경제연구소

주요국의 재산세 부담

최근 국내에서 부동산 거래관련 세금부담을 낮추고 보유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Economist(6.29)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의 재산세 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명목GDP대비 재산세 비율이 영국과 미국의 경우 3%를 넘어서고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합계 중 재산세의 비중도 영국 12.1%, 미국 16.8%로 매우 높다. 유럽국가 중에서는 프랑스의 재산세 의존도가 높아 명목 GDP의 2.5%, 총 조세수입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및 이태리의 경우 재산세의 명목 GDP에 대한 비율이 0.5% 내외이고 총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로 매우 낮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명목 GDP에 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포함) 비율이 2011년 0.7%, 총 조세수입에 대한 비중이 3.6%로 영미권 국가들보다는 낮은 반면 독일, 이태리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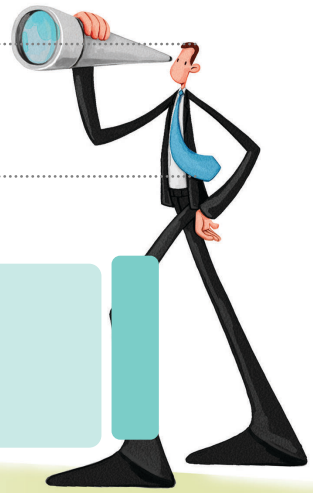
이코노미스트지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행위에 왜곡을 주지 않는 세금의 하나로 보고 있다. 또 OECD연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주요한 세금 중에서 가장 성장친화적이라고 한다. 특히 기업과 인력의 이동이 활발한 글로벌경제시대에 재산세는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재산세 부담은 세입자 및 근로자에 전가되기 때문에 소득 역진적 세금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시사경제용어 **[스시지수(Sushi Index, 초밥지수)]**

평균적인 일본의 가정이 고등어에 비해 참다랑어(참치)를 얼마나 소비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다. 일본 미즈호증권의 이시즈 켄타 에널리스트가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일본 가계의 소비 통계 자료를 활용해 개발해낸 것으로, 정식 이름은 '참치-고등어 지수'다.
일본에서 값싼 생선인 고등어와 고급 재료인 참치의 소비량을 서로 비교해보면 일본 소비자들의 경기에 대한 기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면 고등어를 참치에 비해 많이 소비하고, 반대로 호황이 예상되면 참치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먹을 것이라는 얘기다.

Vol. 29
2013. 8. 16
BS경제인사이트 Weekly
BS경제연구소

세상 둘러보기



부산이 만든 세계일류상품
- 2차전지용 전해액 -

2차전지의 사용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원형형전지는 노트북, 캠코더에, 각형전지는 휴대전화, 폴리머전지는 휴대전화, MP3플레이어, 전기차, 하이브리드카에 사용된다. 업계에서는 2차전지 분야가 현재 IT기기용 중심이지만 그 용도가 수년 내 자동차, 에너지 저장, 로봇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돼 시장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분야에서 부산소재 기업(파낙스이텍)의 제품이 세계시장 점유율 20%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전자부품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2차전지 전해액의 세계 시장규모는 3천5백억원 수준이며, 2015년까지 약 5,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Humor

유머 [문자메시지 오타모음]

할머니에게 "할머니 오래사세요"라고 보내야 할 것을
(할머니 오래사네요)

엄마한테 학원 끝나고 "엄마 데리러와"를 잘못 써서
(임마 데리러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펑펑 울고 있는데 남자친구의 문자
(좋은감자만나)

오늘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사줬더니
(고마워 자기야, 사망해~♡)

우울할 때 남자 친구에게 위로 받고 싶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오늘 또울었다."
(나 오늘 똥루었다)

Vol. 29
2013. 8. 16

BS경제인사이트 Weekly

BS경제연구소

▶ **채권금리 상승세**

→ 미국의 7월 소매판매 지수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국채가격이 하락하자 국내 채권금리도 상승세 시현

▶ **코스피 지수 1900선 회복**

→ 코스피 지수는 1900선을 회복했으며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인한 외국인 매수세로 지난 6월 10일 이후 두 달여 만에 최고치 기록

▶ **달러화 강세, 엔화 약세 움직임**

→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으며 일본 실질 GDP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에 못 미치자 엔화는 약세 시현

◉ 금리

	2012년말	2013. 6월말	2013. 7월말	8/9	8/12	8/13	8/14
기준금리	2.75	2.50	2.50	2.50	2.50	2.50	2.50
CD(91일)	2.89	2.69	2.66	2.66	2.66	2.66	2.66
통화안정증권(1년)	2.78	2.69	2.69	2.63	2.63	2.64	2.67
국고채(3년)	2.82	2.88	2.92	2.91	2.90	2.92	2.94
회사채(3년, AA-)	3.29	3.31	3.36	3.31	3.30	3.32	3.36
회사채(3년, BBB-)	8.80	8.89	9.01	8.99	8.98	9.00	9.03

◉ 주가

	2012년말	2013. 6월말	2013. 7월말	8/9	8/12	8/13	8/14
KOSPI	1,997.1	1,863.3	1,914.0	1,880.7	1,884.8	1,913.0	1,923.9
美다우	13,104.1	14,909.6	15,499.5	15,425.5	15,419.7	15,451.0	15,337.7
니케이225	10,395.2	13,677.3	13,668.3	13,615.2	13,519.4	13,867.0	14,027.5
상하이종합	2,269.1	1,979.2	1,993.8	2,052.2	2,101.3	2,106.2	2,114.4

◉ 환율

	2012년말	2013. 6월말	2013. 7월말	8/9	8/12	8/13	8/14
원/달러	1,071.1	1,149.7	1,113.6	1,113.6	1,111.8	1,113.0	1,116.5
원/100엔	1,247.5	1,167.2	1,135.4	1,151.3	1,154.3	1,144.6	1,136.2
원/유로	1,416.3	1,498.2	1,476.7	1,490.2	1,482.9	1,479.3	1,480.9
원/위안	171.9	187.0	181.6	181.9	181.6	181.8	182.4
엔/달러	85.86	98.51	98.08	96.73	96.32	97.24	98.27